東亞日報

新聞定價 壹枚四錢△壹個月八拾錢△壹個月郵稅共九拾五錢△參個月同貳圓七拾五錢△六個月同五圓四拾錢△壹個年同拾圓九拾錢△地方은必先金

廣告料金 五號活字拾四字詰壹行金壹圓 四號活字 壹行金壹圓五拾錢 特別指定 指定料五割增

發行兼編輯人 韓基岳 印刷人 崔益善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編輯一五三七番 營業三四五六番 振替口座京城三一五五番

教育에徹底하라
첫재學校를세우고 둘재就學에熱心하라

新年劈頭에民族的大勇猛心을喚起하되 民衆의團結을提唱하며 自省을要望하며 經濟的覺醒을促進한吾人은이제다시 敎育의徹底를主張코자하노라

우리朝鮮人이亦世界의文明人으로더부러列國作하야生榮을享하고자하며 吾人子孫의代에또한그와갓흔能力과그와갓흔光榮을傳하야써 吾人의義務를다하고저하는가 吾人의理想이이와갓치雄大하고 吾人의希望이이와갓치宏壯할것갓흐면 吾人의그에對한努力이또한그에相當하여야하며 吾人의犧牲과忍苦가또한그와갓치大하여야할것이아닌가 吾人이安逸한가운데엇지吾人의希望을成就하리오 吾人이努力치아니하고 엇지吾人의理想이自然히實現되기를坐하야待할수잇스리오 英國의今日이今日에된것이아니며 米佛의그것이또한偶然한것이아니라 그中에는民族的或은個人的의無限한犧牲과無限한忍苦가積하야된것이니 吾人이참으로新年을當하야 朝鮮의民族的大勇猛心을促發할진대 天이自助하는者를助한다는古語의意味가더욱히深長한것을 覺하겟노라

吾人의努力이第一如何한方面에必要하며 第一如何한事業에集中이되어야할것인가 吾人에게不斷의努力 沈勇的努力 根據잇는努力 孜々한努力 俳諧者로하야금恐怖하게할만한努力이有할것이라하면 此努力의向할方面이무엇이며그努力에相當한價値한事業이무엇인가 吾人은敎育의振興이며 敎育의徹底라斷言하고자하노라

보라 朝鮮人一千七百萬中에自己의姓名을能히記하는者가얼마나잇스며 讀하고書하고數算을能히하는者가얼마나되며 더욱히事物의理를正當히理解하는者가얼마나되며 普通常識을具備하야 一個市民의資格을完有하는者가幾何이나되는고 一千七百萬의半數가婦女라하면 八百五十萬이곳그것이라 此中에서書信한張은姑舍하고諺文一字를能通하는者가幾何인고 百人에一人이라하면或誇張이안일가하며 그他半數인男子中에서라도 大部分을 占領하는 農民의知識을擧하야論之할것갓흐면新聞한張을姑舍하고 日常簡單한에必要한書信한張을能修하는者가亦百人에一人이면多幸이라하겟도다 然則大體로論之하면朝鮮의一般民衆은大部分이文字에盲目이라할수잇나니 如此한民衆에게知識을求한들그엇지無理가아니며 理想과勇躍을望한들그엇지難을求함이아니리오 吾人은確信하노라 此世上은理論은何如間事實은實力의競爭이라 學한者는無學者를亡하고 知한者는不知한者를滅한다고 此는自然의勢라 人力으로써如何키難하도다 그럼으로吾人은提唱하노라 吾人은學하여야하며知하여야하며文明하여야한다고 吾人의生活을敎할者는日本人도아니며米國人도아니오 오즉吾人自修의敎育이며産業이며團結이며 勇猛이라 그런이團結이何에서生하며 勇猛이何에서發하며 더욱히産業이何로서發達하는고 그근은비록容易하나그實은困難하도다 困難한것이라 相當한原因이잇서야하며 適當한條件을具備하여야하는것이로다

아 吾人은困難을當할때에敎育에避身한것갓흐며 解決의難을時에敎育에稱托하는것갓흐나 그러나實地를細檢하면果然그런것이아니로다

然則具體的方針이如何한고 吾人은昨年에朝鮮民衆의敎育熱이旺盛한것을見하고 我民族의復活을果然神明에感謝하얏나니 今年의 그徹底를祈禱하얏나니 今年의方針이別한것이아니라 그熱을持續하기를希望하며 그努力을不斷히기를要求하며 그熱과努力을併하야 「事實」에成就하기를熱望하나니 到處에學校가建立되야 靑年男女가嬉々然히就學하기를바라노라 아ー엇지아름다운光景이아니며 질거운業이아니리오 朝鮮에無限한生命이此에包藏되얏다할것갓흐면 朝鮮人의無限한光榮이또한此에冠하는바될것을吾人은確信하야不疑하노라

學校를建立하고吾子弟를就學시김에는勿論一般社會民衆의犧牲과忍苦가必要한것이上述한바와如하니 첫재勞働結果의一部를割하야學校建設費에寄附함이必要하며 其他敎育費에充當할必要도有하며 少年少兒의勞力을利用치못하는不便도有할것이라 그러나大를期하고 功을成하는者는 能히참고犧牲하는度量을有하나니 吾人이玆에此文을起草하야써 一般父兄에게敎育의徹底를主張하는所以도大槪그犧牲을甘受하고一層의勇猛心을發하기爲함이라 自暴自棄하는者를天이엇지能히助하며 스스로不進하는者를神明인들엇지鼓舞獎勵할수잇스리오 吾人은朝鮮人이스스로奮起하야 그生命을爲하야스스로奮鬪하되 到處에學校가設立되고到處에靑年이就學의機會를得하기를希望하노라 義務敎育은吾人向上의出發點이오學의獨立은吾人文化史上의終結點이로다

物價騰貴에對한民間의對策을論하노라(二)

鮮于 全(寄)

一、序 言(續)

此에依하야戰時初와戰後即大正十年現在의指數를相比하면 米國은開戰初에比하야十二割二分이高하고 英國은十五割七分이高하고 日本은二十二割八分이高하야 日本의物價는戰時初에比하면倍以上의高價를占領하게되얏스며 英國이나米國은戰後漸次下向의形勢를維持하나日本은大正十年四月을下向의最終으로하고 更히昂騰하는傾向에有한것을見하겟스며 또英國에在하야는戰後經濟界實情에日米兩國과多少相異한點이有하나 日米兩國間에는何方面으로觀察하든지國內經濟界實情에相異한點이無함에도不拘하고 兩國間物價에如此한顯著한差異를生하게된것은 要컨대兩國의物價에對한政策이同一치아니한點에歸因함수밧게無하다 이제日本과朝鮮의物價騰貴에關한民間의對策을論하야써生活難緩和의一端을作하고자한다 다못吾人이注意할것은 朝鮮은經濟區域이獨立한者가아니오 日本의經濟區域內에包含이되야그經濟政策에影響되는바이頗多한故로此에論코자하는物價調節策에對하야서도 日本을對像으로論하는同時에特히朝鮮人의事情을斟酌하얏다

二、消費組合

巴里의著名한經濟學者긔ー드博士는消費組合의必要를左와如히말하얏다

「一般消費者는無識하고 輕信하고愚昧하기가他階級보다一層尤甚하다 即一般消費者는誰某의言이든지 盡信用하며 何事에든지自副自卑하야 自己를犧牲하고他를利롭게하기를마지아니한다 政府가小麥에高稅를課하고命令하기를 이것이國民의義務오 國民을爲함이라하면 一般消費者는何等의不平과疑心이업시 그高價의麵麭를購買하며 乾無花果或은忍耐「카ー비」糖으로粗製한葡萄酒를愛飮하는消費者는이것을最優良한葡萄酒로輕信하야滿足하며 裁縫師가說明하기를當今의流行은短衣長袴를着用하는것이라하면 一般顧客은容易히此를信用한다 一般消費者가正直하고淺慮한것이大槪이러하다 譬言하면自己의貴重한衣毛를剪奪하야도 一聲의哀怨을發치아니하는小羊과갓다 이와갓치正直한消費者는政府의命令대로商賈의指示대로 唯々應從하야如何한負擔을課하든지自苦치아니하며 如何히自己의利益을侵害하는지 그犧牲을感覺치못하는것이다 이果然奇怪치아니한가? 商品은消費者를爲하야生하고畢竟은보다消費者에게로歸하는것이原則이다 消費者가自己의必要한것을指定하고自己의必要한物件을豫示함에依하야 商品의生産이란現象이生하고 消費의標準이測定된다 換言하면消費者가椰子의實을要할때에「사하라」大沙漠에椰子樹의培養이生하며 葡萄酒를要求할때에「보ー르ー드」曠野에葡萄樹의栽培가生한다 그러나그實消費者에게配給되는椰子實、葡萄酒는消費者가元來要求한바그良質의것이아니오 粗製品 攙造品이며 그支拂하는價格은生産實價의幾倍에나當하는狀態이다

이제商品의轉換的作用에就하야觀察하면 消費者는自己가消費으로生産한生産品을自己의努力하는것인즉 生産品의價格은消費者의意思를無視하고決定할수업는것이다 故로消費者는生産에對하야重要한地位에在하며 生産者에對하야支配의權勢를有하는터인즉 消費者는그各自의地位를自覺하야支配의權勢를回復하여야할것이다 그러면그地位를確保하는方法이무엇인가 그地位를確保하는可能性의有한것은消費組合以外에他가無하니 消費組合이그本能을發揮하야그効果를充分히收할時에 消費者는能히그地位를確保할것이며 그不良한商品을驅逐하고 良質의商品을廉價配給을受하게될것이다」하얏다

氏는上述한바와갓치 近來貧弱한消費者의經濟的窘迫을救하며 自覺的奮起를促하되 「消費組合」이그가장適切한自救的方法인것을痛論하얏스며 更히進하야 消費組合의學理的說明을加하되 此組合이發達하야그本能을充分히發揮하게될時에 現代勞資階級의爭鬪를特色으로하는社會問題도穩健히解決되리라하얏다 氏는이와갓치消費組合의必要를力說하얏스며高調하얏다 余는勿論氏의消費組合에關한學理的說明에對하야는首肯치못할點이無하다하지아니하나 그러나近來商賈同業者의勢力이甚히膨脹하야 下級人民의生活難이危急을告하게된今日에在하야는 消費組合의時代的必要를切感하는同時에 特히朝鮮人目下의事情으로는此機關의研究와利用이決코無益한것이아닐가한다

文壇에對한要求
나는오즉苦言을(완)

梁建植

나는新文壇에對하야아즉아모要求가업다 만일잇다하면이는要求가아니요 오즉苦言을할것뿐일다

最近의文壇은一譬하건대맛치現今의우리朝鮮의人心을象徵한것갓치그混亂荒雜함이空前絶後하다하겟다 이混亂荒雜은人心이容易히統一못될것갓치아즉은免치못할줄로안다

따라서거기에무슨標準을세울수업고要求할무슨對象을發見할수업다 그런데누구나다우리朝鮮文壇의創設하신여러大家네들의創作?을一讀하니들은모도다修養과讀書力이업다고말을한다 이는오늘날識者의口頭에 오르내리는말이어니와識者아닌나로서 只今이러한말을거듭하야反覆할必要를痛切히늣기는것은참으로遺憾으로생각한다

오늘날갓치文壇에일홈을두기쉽기는아마前古에그例가업슬줄로안다 보와라 一二篇의詩나少說을雜誌에揭載하면得々然大家로自處한다 勿論나도偉大한文藝上作品은文化의進步가高은民族에게비로소나는줄을안다 그리고現代朝鮮文士는또朝鮮이란背景을가지고잇는것도안다 또智識이낫고感情이遲鈍한民衆을對하고잇는處地도안다 그런데말이다 웨一行의文章도滿足히綴치못하고個性도아모것도업는文士가되야小成에饜足하고大成을바라지안나니 말이다 어느西洋哲人의말에「學者란書籍을讀은사람이라 그러나思想家 天才 先覺者 人類解放者는直接으로人生의書籍을讀은사람이라」함을내가어느書籍에서본듯하다 또어느小說에서 「世事通明皆學問 人情練達即文章」 이란詩를보왓다 文士는적어도思想家의素質이잇는後에人生의書籍을讀은사람이라야한다 그런데世事에通明도못하고人情을練達도못하고一行文도짓지를못하면서偽天才偽文士가웨그리만흔냐 내가現文壇에서詩人인사람의詩를讀은일이잇고 批評家도아니요作家도아닌사람의考選에對한感想談을들은일이잇다 이것만보와도現文壇의消息을可히알것이아니냐

最後에한말로부치난것은필신더修養하고더讀書하야小成을바라지말고大成에힘쓰기를바란다 흔히도라다니는말에 『藝術은長하고人生은短하다』 아니하야나 短한人生으로長한藝術을써치고커갈진대무던히修養하지아니하면生命이업다 그리고杜甫의말과갓치 「讀書破萬卷下筆如有神」 이라고讀書하여야한다 요사히發表되는作品갓치로두번읽기슬코그壽命이一年을다못간대서야藝術家되야못그럴지아니하냐 그리고또只今의文壇은學生文壇이다 그程度로도아즉그러커니와 現文壇에占據한人이內地學生이던外國留學生이던만히잇슴을한번注意하기를바란다 勿論우리朝鮮의現今新興文壇에는大作家가잇는줄안다 그런즉이말은大作家를두고한말은아니닛가이點에對하야誤解말기를바란다

「小」의暗影 (四)

瞬星生

慶男이와作別한 哲秀는 고개를푹숙이고 桂洞집으로 다시내려온다

종용한밤거리에 말업시 걸녀우뚝선木覓山은 볼제마다 果然버리기어려운 景致이언만 哲秀는 한번돌녀보지도아니하고 무슨깁흔생각을하는지 고개를 수기고 땅만내려다보며 뚜벅々々내려온다。

不幸한靜子의 一身을 엇지措處하야할가 이일로하야 近日에지아니 속을석이기던터이니 慶男의말을드르매 얼마간 귀에띄이지아니하는바는아니나 다시 생각하건대 色盲이니 色狂이니하고 世上에서못치못한 評判을듯는黃富成의집에는 비록 家庭敎師라고는할지라도 果然 보내고십지안타。 더구나 靜子는 女子의몸인즉 그런말만듯드러도 必是벌々떨고슬혀할터이나 이것을自己一個人의意思로처음부터딱々拒絶하기도어렵고 또그렇다고도라가서 이런말을 하고보면 靜子는自己뜻에못고언잔은것을不斷하고 畢竟黃哥의집으로 가게될것이새언한노릇이라。 그러나이일을 말하지아니치못할 어려운事情이또잇다。 一家의主人으로서 自己딴은 엇지할수업는나도 自己뜻대로 하게되지못하는 哲秀는 自己身勢와比較하야매 焦燥한생각은 가슴에불을퍼붓는듯하다。 그런생각을할때마다 아々人生이 아차 그릇하야도。아々人生이。아차 그릇하야남의집데릴사위의몸이되지말지로다하고 또다시自己身勢를 恨歎한다。哲秀는金弼俊의 데릴사위인 外닭으로。

그러나 丈夫되는 金弼俊은婚姻前에 임의이世上을떠낫슨즉 지금 손우의사람이라고는 丈母되는 鳳子未亡人하나이요。그外에는 鳳子의所生即哲秀의 妻되는英子와。弼俊의 不品行으로因하야 針母의배를비러나흔 妾間되는靜子뿐이요。사나희라고는 哲秀하나이니。 쓰나 다나、조흐나 언짠느나、左右間 一家의主人公이라。그가 집안일을마음대로 하지못한다하면。그러나무책임하다하겟스나、그러나아모리하야도 마음대로 되지아니한다。그야 하라고들면못할바는아니나、다만그러한後에 뒤구녕으로서는소리 우는소리、맛대해서는 비쇼는수작과 상서롭지못한얼골、그것이甚해서 화풀이로지랄치는꼴、그런것이 果然보기가슬혀서 그러참고、自己고집을꺽우라하던 勇氣도頓挫되야 母女의하는대로 지내오던 多年의。惡習慣이 지금은인에 배아조。백엿서다시끔 벗어날수업시 되엿다。

靜子도實로 薄命하야 母親의배속에서 나오자마자 곳乳母의집에서 길니다가 次々長成하야 그 父親의집으로 드러오게되매 그父親으로말하면 某部高等官으로 한참 등々하던판이라 父親이自己體貌를보아서도普通學校로부터女子高等普通學校二學年까지는無事히通學하게하얏스나靜子가次々年滿하야지자偶然家運이漸々기우러지가매 父親은화를내든끗에靜子를寄宿舍에집어너혓다。그러고나보니 學費가너무過히 든다하야 또다시 退學을하게되고、그다음에는 西大門近處 엇던 耶蘇敎學校에 寄託하게되매靜子에게는이것이도로혀 不幸中다힝이되야、그學校안에서 英語가 熟達하게되엿다。自己도 깃브게생각하야 專心으로 工夫하던中 父親이 病死하자 家政大改革의 口實下에 前에 父親生存時에 靜子의몫으로떼여두엇던 財産은 언제어느틈에 어되로갓는지 不分明하게되고 억지로退學을식혀、哲秀가婚姻하는同時에。靜子도 시집을보내엿다。그리하야 얼마동안은方에 가잇섯더니 不幸히 그남편과死別하고 친정에 도라오매갈곳이업는 불상한處地라。그것은갓구박을 다바드면서도 당장를 哲秀는 自己身勢와比較하야衷心으로 불상히 생각하는바이나、情이寃鬱타하는것이 이런을가르커 말함인지 哲秀가 그의편을들면 듣사록、丈母와妻는이不幸한 사람을 들복가 못살게군다。그런함으로 哲秀는 더욱々 憫惻히생각하는바이다

東亞短評

◇五十日을經過한華府會議는漸次收穫期에入함을傳하나會議의成績이豐作이아님에失望

◇海軍協定은各國의調印을行하리라하나補助艦艇의比率이決定치못하면此亦有名無實

◇四國協定이成立되얏다하나世界의平和를保障함에幾分의効果가有할는지結局畸形兒

◇陸軍의制限은議題에上치도못하얏스니何로써中歐이나遠東의永久한平和를保全할가

◇强히成果를計算하라하면日英同盟의破壞와今後中國에對한列强의侵略牽制等不過數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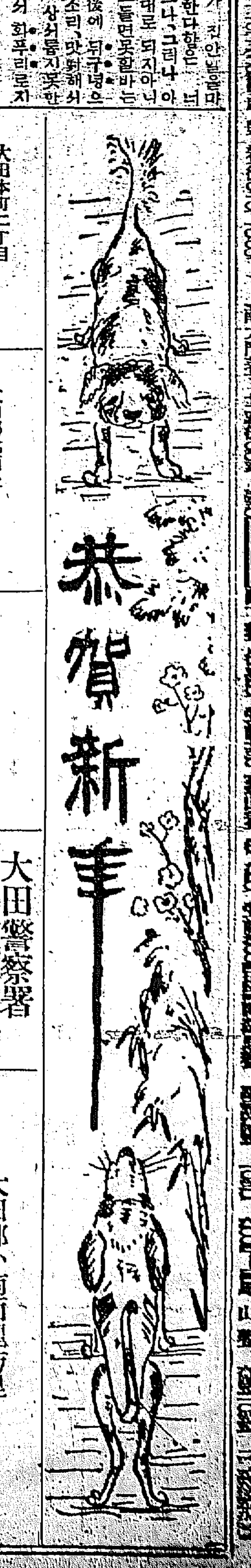
◇萬若華府來電과如히會議가今月末에終了하면序論에不過한問題는何處에서結末을할가

◇山東問題의交涉은英米의斡旋과中國의大決心으로解決될希望이不無하나逆睹는困難

◇極東共和國의對日宣傳이華盛頓에서漸次熾盛한模樣이라 言傳의敵前에는日本이恒常閉鬱

◇印度의非協同派는結局英國政府에向하야血戰을布告云云의今後對策如何勢益重大

◇愛蘭의次에는埃及埃及의次에印度로自西徂東하면英國旗幟에落日이橫함도其在不遠乎



大田本町二丁目 洋靴店 金榮海

大田本町二丁目藥令市 大昌堂 李遠寧

大田郡本町二丁目 綢緞布木雜貨穀物 南鮮商會 主任 許廼遠 主務 李仁稷

大田郡鎭岑面鶴下里 金憲奎

大田春日町二丁目 朴正吉

大田春日町二丁目 延壽堂 醫生 金益濟

大田郡柳川面柳川里 兪原濬

大田本町二丁目藥令市 藥種及運送業商 韓元敬

大田郡柳川面安永里 趙鏞淳

大田郡柳川面唐岱里 宋熙在

大田郡柳川面福宋里 金達鉉

大田郡柳川面屯山里 兪德濬

沃川邑內下桂里 鄭觀溶

沃川邑 無名氏

大田郡大田面春日町二丁目 俞珏兼

大田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大田郡北面長 宋元用

大田郡外南面大東里 金容璇

大田市場 米穀商 禹永瑞

大田郡外南面方丑里 林弘植

大田郡外南面方丑里 宋鍾和

大田春日町一丁目 金日洋服店 主 金聖順

大田本町二丁目 布木商 金濟根

大田驛 徐丙昌 車仁晳 柳昌浩 金明杓 鄭彰模 朴章淳 吳秉澤 李宗珪 朴順洪 林春熙

大田本町二丁目 淸心理髮館 理髮師主 禹聖彦 金益晉 李鳳周

大田郡本町二丁目 雜貨商 朴允浩

大田郡本町二丁目 藝妓 徐桂山 韓蓮玉

大田青年會文藝部 巡劇員 李吉用 宋在溶 李昌珪 金濟煥 金益善 李康順 朴萬永 金榮七 徐丙斗

大田郡外南面新岱里 宋在益

大田本町二丁目 金濟煥

大田郡外南面[illegible]里 宋在溶 宋在鳳

大田郡柳川面月坪里 金聲欽

大田春日町一丁目一二五 牛皮貿易商 三重商會 佐治雄三

大田本町二丁目 李圭夏

大田郡外南面外泉里 金容觀

大田本町二丁目 金致璋

大田專賣局出張所 金喆熙

大田春日町二丁目 尹光熙

大田春日町二丁目 柳基正

朝鮮興業會社 大田管理所 李淳炯

大田郡外南面大東里 宋在學

大田警察署 署長 長谷川豊治 金學圭 朴禧榮 方滿學 朴明立 任在學 鄭炳億 梁在德 朴基舜 尹八奉 卞鍾浩 黃奎喆 李鎔大 李泰熙

大田本町二丁目 韓琦賢

大田郡外南面[illegible]坊里 任廷彬

大田郡外南面[illegible]孝里 朴基英

大田郡春日町二丁目 金泰洙

朝鮮新聞社 大田支社 野野村次郎 大田郡春日町一丁目 長電話一六六番

大田郡大田面長 渡邊寬治

大田春日町二丁目 李淳冕

大田郡北面石峯里 朴贊洪

大田郡外南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郡外南面龍坊里 勞働夜學校 職員一同

大田青年會

沃川青年會 會員一同

喪中缺禮 大田郡外南面玉溪里 閔泳晉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 大田支部長 黃佑燦 金澤洙 權庚得

大田 鄭良模 李根澄 尹石正 南熙會

大田郡本町二丁目 穀物米穀精米 海陸物産委託販賣 共益商會 長電話二七番 又三一番

東亞日報大田支局 大田郡春日町二丁目一〇一番地

錦山分局 李源泰 趙裕基 李吉用 鄭在海 柳國燮

京城臥龍洞九三番地 百錬木工場 主 金百錬

京城西小門外蛤洞三三番地 物產客主 梁柱玩 長電話二九七八 電略(양)又(주완)

海軍協定請訓中

本會議는海軍問題의諸決定에就하야 各國全權이各々本國政府로부터訓電을受하기까지休會하고各國政府가共히此에異議가無하면海軍協定은全權會議에서調印할터이더라(華盛頓一日發)

軍備決定最後幕

補助艦制限에對한米國의努力

潛艦問題에次하야補助艦制限에對한原案이崩壞되야開會以來最大의難關에逢着이된華盛頓會議는今에新年에入하야其他二三의問題와共히過去의協定에對하야最後의決定을告하려하는터인故에二個月間이나論議된問題의實際的效果如何가決着할重大審議에入할지라補助艦艇制限撤廢는英米利加當局에對하야特히對上院關係에難關이될지라「휴스」氏는更히會議解決에對한最後의努力으로英國首相을動케하야「카―느」會議에서「브리안」氏를說得하리라고信하더라(華盛頓一日發)

唯一暗礁는山東案

海軍專門委員은新年도休치아니하고活動을繼續하야各專門的方面보다困難을除한五大海軍協定은既히完成하고又六國協約의「야-프」島協定도今週中에調印되리라思하며會議의暗礁로殘한者는但山東問題인바米國의輿論도日本側에傾한다더라(華盛頓一日發)

山東案公開主張

日本이無條件으로山東鐵道를還附함을拒絶한故로中日委員間에紛糾를惹起하야中國은同案을公開會議에提出한다揚言하는데日本委員은本件은아직考慮中이라主張하야更히關係委員의手로審議함을要求하더라(華盛頓一日發)

英米에調停要求

中國代表委員은米國全權「휴스」氏와英國全權「발포아」氏에게兩氏의仲裁로停頓된山東問題의調停을求하얏더라(華盛頓三日發)

中全權脫退飛電

中國全權은本國의輿論이猛烈하야會議로부터脫退를迫하는飛電이頻々하얏는데此는想必山東問題에對한英米最後의斡旋을拒絶한다는意味의宣傳인듯한데右에依하야中國은會議에서緊張한一種의威嚇을演할터이며又西伯利問題가有한바「휴스」氏는海軍問題만決하면他는成行狀態에任할狀態인데日本은極東資源開發을目的으로하는經濟的協定締結의大問題를有하더라(華盛頓一日發)

華府會議閉會期

一月二十日豫定

海軍問題는今週에遂히決了에向하야大進展을見하리라期待되는바主要全權은今週末本國에出發할터인바德川全權은一月六日에出發할지며華府會議의閉會는想必一月二十日이되리이더라(華盛頓二日發)

四國協約과米下院

四國協約에就하야昨日「락지」氏는三三個袖와會合하야如何한保留案이나不可한態度로決하얏는데民主黨首領「히치카」氏는會議의終了를待한다云하나蓋氏主黨의思하는바는四國協定만이안임은勿論이더라(華盛頓一日發)

英佛感情稍緩和

佛國全權「사로-」氏는演說하야佛國은英國에對하야敵對的目的이有하다는說을否認하고佛國은島國的潛水艦戰法을採用하는意向이無하다言하야英佛間의感情은此에依하야大히緩和되얏더라(華盛頓一日發)

日佛密約의文書

智多代表의發表

智多代表는本日當地에서全然捏造의文書를發表하야一時言論界를驚動케하얏는데即日佛露三國間에條約이有하야西伯利가過激派의手로부터離한時日本은西伯利의支配權을得할지며又日佛間交換文書의謄寫가有하다한이라此에依하면佛國은華盛頓會議에서西伯利問題가論議되는時에는一切日本과協同하야亞米利加의政策에對抗할지며日本은撤兵術早論을唱하야佛國은日本의政策을支持하리라하얏더라右에對하야幣原全權은其全然無根함을聲明하야此捏造를反駁하고佛國代表도其無根한事를聲明하얏더라(華盛頓一日發)

別報―日佛兩國委員이否認함에도不拘하고智多政府의使命은日佛兩國間에西伯利와露西亞에關한協定이確實히存在하다主張하는데軍備制限會議側에서는日佛兩國이露國의過激主義를壓迫하기爲하야又는米國의東洋에對한利益에對抗하기爲하야秘密協約을結하얏다는非難은實際無視되더라(華盛頓一日發)

文書虛構指摘―在華盛頓通信員은西伯利亞에日本의保護領을設定코자하는日佛共同提案에關하야在華府智多政府代表者가發表한所謂日佛往復文書라는것은其文體의拙劣함과內容의性質을見하야도捏造한것이無疑하다하야該文書를僞文書라하는바一記者는日該文書는一見에其僞造임을識別할뿐아니라其考案이亦拙劣을極하야何人이라도此에見欺치아니할지라然이나一般新聞界의輿論은其結果가必히可憐할者가아니라特히米國內의一部에서太平洋其他의諸協約批准을阻害코자하는努力이有함에鑑하야最히此를遺憾으로思한다云하얏더라(倫敦三日發)

●國務卿은西伯利亞에關한所謂日佛協約에就하야何等絶對로關知한바가無하다고聲明하얏더라(華盛頓三日發)

列國全權歸國期

列國全權委員은太半一月下旬에歸國할準備를行하는데英國全權「발포아」氏는十四日佛伊兩國委員은十八日出發歸國의途에就할터이며日本委員은一團에分하야出發할터이나其多數는一月下旬에出發할터이라더라(華盛頓一日發)

日海相大減員聲明

海軍協定에伴하는人員淘汰에關하야加藤海相은涙를落하고上級에大斧鉞을加하야下級이릴에從하야淘汰를少하게할方針으로省內의施設과人員等을此際에斷然縮少하고又旅順을始하야二三要塞에對하야도大斧鉞을下할方針이라言하더라(華盛頓一日發)

國際借款團計劃

主要目的은貧困消費國民救濟

歐洲經濟專門家會議는國際借款團組織을發起하얏는데此는私的資本으로써組織하야贊同各政府의援助를得할터이더라英國의主要目的은物々交換法에依하야露獨國民과의通商을恢復하야生產國과貧困消費國民과의間에物々交換을行코자함에在한데右計畫은最高會議에서可決한後汎歐洲經濟會議에서委細協定을行할터인바右資本은數千萬磅이라더라(巴里一日發)

大連會議中止乎

海港政府排日濃厚

海港政府政權은漸次擴張되야非常히優勢를占하야盛히排日의色彩가濃厚하는狀態인데大連會議에對하야極東露國에在한信賴가日增하는中인데大連에在한日本委員은交涉을中止하게되리라觀測하더라(大連電)

張作霖歸奉

張作霖氏는三日夜八時着列車로北京으로부터歸奉하야軍樂隊의盛大한歡迎裡에城內에入하얏더라(奉天四日發)

馬賊討伐

一月十四日을期하야

中國第二十一混成旅團步兵隊長張從雲氏는近々東三省內에在한馬賊大討伐軍을組織하야一月十四日을期하야馬賊의本據인頭城縣에向하야行動을開始할터이라더라(吉林電)

山東案北京交涉

中國側의報道에依한즉小幡公使는梁總理와會見하고山東問題에關하야約一時間을談議하얏다는說이有하더라(上海三日發)

米伊水兵衝突

一日夜上海「카이브론」의「비로리아바-」에서米國水兵의一團과伊國水兵二十餘名의一團間의衝突이起하야雙方이共히「나이프」와拳銃을使用하야米國側은死者四名負傷者四名을出하얏는데米伊兩海軍當局은目下衝突의眞相에就하야調査中인바原因은尙히不明하더라(上海三日發)

大飛行場設置

航空界의發展에伴하야各國이共同國境을越하야外國을訪問함이頻々한데今回同航空局은民間飛行界를爲하야東京近郊에一大飛行場을設하야此를國際飛行「쓰테-슌」이라稱하리라더라(東京電)

過激宣傳의機關과系統

日本政府가目下大連會議에서極東共和國政府의對日宣傳中止를所謂十七個條의通商開始條件에加하야交涉을進捗中인바日本側에서調査한宣傳機關의組織系統等의實證을擧하야此를「페드로푸」氏等委員에게提示하고此絶對中止를要求하얏는데其內容을聞한즉宣傳의中心地는哈爾賓이오特히極東의宣傳中心地는哈爾賓이라하며哈市에서沿海州方面에對한宣傳은「산그나니츠나야」(露中國境)를經하야主히印刷物에依하야宣傳하고又上海、朝鮮日本、米國、及長春을經하야文書及密使에依하야實行하는中인바各地에在한宣傳機關의概略은示하면左와如하더라

各地에在한宣傳機關의

▲莫斯科 國民革命委員會極東宣傳部

▲「옴스크」 西部西伯利亞革命委員會

▲智多 露國共產黨極東局

▲哈爾賓 同市에는極東共和國代表「오솜신」氏下에四機關이有하나(一)露國共產黨中亞細亞委員會인바馬家溝街에在하야朝鮮、日本、中國에對한宣傳을主管하고朝鮮文으로宣傳書를作製하야「다리아-」를通하야各地에發送하고(二)革命司令部(三)또는(四)오十七名으로成한委員會(四)오十番地에在한바同所에日本、朝鮮、米國、上海等에常히密偵을派遣하고哈市、海港、「안치노」長春「쓰그라니츠나야」等地의連絡에는密使가往復하고此에當하는人物은全部婦人이라하며

▲沿海州一帶는目下메루쿠로프政府의勢力範圍임으로堂々히活動치못하는形勢인바其機關은完全하야暗中飛躍을繼續하는中인데其中心地는海蔘威及「안치노」이더라

海外派遣

委員으로米國에商事派遣委員長「야스아코프」氏以下數名上海에「아가리요프」委員長以下數名又日本及朝鮮에는員數不定의密使偵이時々往來하고危險을顧慮하야常設機關을設置함에至치아니하나不絶히哈爾賓의「오솜신」事務所와通信連絡을取하는中인바露國中通商이不調에歸하얏슴은勿論이나한번半途에暴露되얏슴으로此點에關하야注意할바이더라

林業經營이急務

朝鮮產業發展의根本要素

總督府殖產局山林課長 岡崎哲郞

凡林業經營은燃料其他日用材의供給에依하야直接經濟上의利便에供하는外에農業工業其他諸產業에對하야生產의資料를與하며又는水原을涵養하야工業原動力의供給을潤澤케하며又는國土의保安氣候의調和風致衛生防風等間接의効用이不尠한것이라朝鮮에서도最近製紙「셀룰로이드」染料의製造等林產物을原料로하는工業이勃興되고又水力에依하야工業動力을得코저하는要求가一層緊切한者가有한中最히密接한關係를有한者는農業經營이라然而農業은朝鮮

產業의大宗 으로서其產額으로던지其生活上重要不可缺할點으로던지他種產業의企及치못할者이有하며從하야其數로도朝鮮全戶數의八割餘를占하는狀況인데由來水旱의年에農家는朝鮮의利하며特히朝鮮農業의豐凶禍福은水利灌漑의如何에支配되는바此水利의關係는爲主하야森林에依하야生하는바인故로將來朝鮮의國運消長과一般人民의福利增進은其主要原因이森林의繁否如何에在하다云하야도敢히過言이아니라然이나朝鮮에在한林野面積은約千六百萬町步를有하야全面積의七割三分을占하야世界에稀貴한山國이나現在顯著한荒廢에陷하야成林地는僅히北鮮의保育에依하야造林의目的을遂하기에至하고其他天然稚樹林의伐採가不絶하야又는其荒廢의程度를益甚케하얏스니…

林政의基準

을定하는同時에一面으로殖林을獎勵키爲하야苗圃의經營을行하는等相當한施設을講한故로施政當時에는人工植栽面積이僅히四千町步에不過하던것이大正八年度에는五萬九千町步에達하야過去十年間에約十六倍餘의進展을示하기에至하고其他天然稚樹의保育에依하야造林의目的을遂…

林野의登記及林野調査에就하야는四年에森林令을發布한後爾來或은林野區分調査를施行하야或은林野의所在區分을決定하고或은林野調査를施行하야多年混沌하얏던林野의權利關係를明確케하는等의施設을講하얏스며又는模範林의設定을行하는等相當한施設을講하야…

特別한機關

을設하야保護하는部門綠江豆滿江上流其他從來의封山禁山의區域에限한바其面積도全林野三分의一即五百四十萬町步가有함에不過한狀態이나其他의土地約一千萬町步는稚樹가生한地又는未立木地의그런故로其造林完成을見하기不遠한事業인바이라思惟컨대朝鮮의殖林事業은將來林產物의需要와氣候風土其他周圍의狀勢에照하야有望한事業인事는今에更히說明을要치아니할바이며有望한事業인바라特히此際에一言할것은…

直接日用材의缺乏을告하는地方이有하면與論이要一朝降雨에際하야洪水被害額은平均六百八十萬圓이라稱하는바大正五年度以來三個年間의洪水의災害를蒙하야…

…會하면與皆洪水의災害를蒙하야…現에大正五年度以來三個年間의洪水被害額은平均六百八十萬圓에達하얏스니如何히其慘害의大함을可想할지라以上의關係로總督府設置以來專혀林野의回復에意를注하야明治四十四年에森林令을發布한後爾來或은…

必要한燃料

에對하야見컨대現在使用量은概約六千七十萬尺締에達하얏스나過去十年間의戶數增加率은年々一分六厘로써今後三十年後에는約六割餘가增加될지라그러서將來顯著히林產物의需要를增加할터이니民有林野는現在甚한濫伐에陷하야不尠한木材移入을要할뿐아니라落葉下草等으로써艱辛히不足을補充하는狀態로將來此等無限한需要에應한다함은本來不可能한事인즉此際森林濫伐을戒하고未立木地의造林을行할必要가有함은何人이던지異論이無할바이라然이나前記林野中約五百四十萬町步에對하야는將來國有로存置하야直接國의經營에屬할것이나今林野의六割六分即一千萬町步餘는將來民有林野로하야此를民業의發達에俟치아니치못할것이니此等林野中에는將來造林을要할面積約二百二十五萬町步이나되며且伐採跡地의造林을要할者이年々六萬町步를下치안할狀態으로써今後에는一層所有者個人의奮勵와努力에俟할바이不尠할지라幸히林野調査는…

林野調査는

既히大部分의調査를終了하고殖林熱의勃興은一層顯著한事實을見하기에致하야上下一致努力하면不遠에朝鮮의林業은將來林產物의需要와氣候風土其他周圍의狀勢에照하야有望한事業인事는今에更히說明을要치아니할바이며有望한事業인바라特히此際에一言할것은前述과如히治水其他國土保安에關係를有한事業이라同時에公衆에裨益을與하야直接으로社會의安寧을保持하는事業인故로有識者는前述과如히治水其他國土保安에關係를더욱深知하야今後에更히事業의振興을期하며林野의回復에意를注하야百年의大計에過誤가無할事를期치아니치못할지라

鮮銀…輪移出時期에入하야日々增加의傾向을示하야期末에亦五千萬圓의膨脹을示하얏는데鮮銀은此間에終始一貫으로財界의

整理

와內部充實에努力하야前述의貸出增加와如함도其內容은爲主히鮮滿產業助長으로因하야必要不得已한貸出即比較的低利의輪移出資金이엇는故로別로中間景氣의災害된바가無히豫定의利益을得하얏스니即同行今期純益은三百五十二萬四千二百八十六圓四十七錢이며此에前期繰越金五十一萬八千八百七十三圓四十六錢을加하야

合計

四百四萬三千百五十九圓九十三錢임으로當然前期同樣의配當及積立을함을得할者이라信하겟더라

年末手形交換

枚數金額共增

京城手形交換所의客年十二月中手形交換高를聞한즉十二萬四千五百二十八枚요金額은六千五十三萬三千五百六十圓이며一日平均交換高는四千六百十二枚요金額은二百二十四萬一千九百八十二圓인바此를十一月에比하면合計枚數는一萬一千九百二十一枚가增加하얏고金額은一千二百十八萬三千三百五十五圓이增加하얏스며此를昨年末에比하면枚數金額共히非常히增加하야年末財界의繁忙을示하얏는데過去三年間十二月中京城手形交換高를示하면左와如하더라

年次	枚數	金額(圓)
八年十二月	九八、八二四	七九、二九八、八三三
九年十二月	八六、八九八	五三、三四八、〇八八
十年十二月	一二四、五二八	六〇、五三三、五六〇

客月不渡手形

京城手形交換所의去十二月中不渡手形發行高를聞한즉枚數는七十三枚요金額은二萬三百四十三圓으로漸次減少하는傾向을示하얏다더라

下半鮮銀業績

純益三百五十二萬圓

大正十年下半期의朝鮮滿洲金融界의現著한狀態는日本財界中間景氣의影響을受하야甚한緩漫狀態에始하야逼迫한狀態에終하얏는데從하야鮮滿中央銀行인鮮銀의業績에相當한變化를生한事는自然의結果라하야도可할지니即其銀行券의發行高는九月中旬以後逐日增加하야期末一億三千六百萬圓에達하야前期末에比하면約三千八百萬圓의膨脹을示하얏고其…

年末鮮銀券膨脹

去十二月三十一日朝鮮銀行發行高는一億三千六百萬圓을示하야去九年十二月末에比하면一千二百萬圓이增加하얏다더라

日鮮信托進捗

日鮮信托株式會社朝鮮側創立委員成瀨竹松氏는去二十一日에大阪에出張하야發起事務를交涉中이든바大阪東京地方의實業家武內作平氏外七十七人의發起人調印의全部終了되얏슴으로昨夜歸京하얏는데不遠間證據金을申込하게하고第一回拂込期는來月中旬이라더라

總督府事務開始

總督府에서는四日午前十一時總督總監以下各局部長이參集하야第一會議室에서始務式을擧行하얏다더라

消息

▲竹內友治郞氏(遞信局長)新義州地方에出張中이든바五日夜歸京

▲尹大榮氏(洪城實業家)再昨入京漢城旅館에

▲李明世氏(湖西銀行洪城支店長代理)再昨入京漢城旅館에

▲藥種貿易株式會社經理部長南廷樞氏가大邱命에二週間出張

橫說竪說

▲總督府開始以後許多의問題를惹起한百般의施設中에節次煩瑣한書類政治를行한것도人民을가장困苦케한것의한가지이다▲齋藤總督의赴任後에는形式에拘泥함이업시輿衆의便益과民意의暢達을圖한다하느니形式的政治의弊를打破하야法令은可成簡約을從한다하느니事務의整理獨捷에努力하야民衆의便益을計한다하느니諭告로訓示로屢次其改善을聲明하얏다▲其後의實績을보면全局을通하야僅少한變改가全無함은아니나大部分即殆히全部에는舊來陋習이依然하야日常에民衆을苦痛케함이前日과差異가別無함은總督府의宣傳標語中에漏落된것으로도證明할만하다▲即日常에民衆과接觸이가장繁多한官公署에서申告로도足할事項에依然히許可이나認可主義를固執하며口頭로도足할事項에반드시書類를提出케하는弊風이前히流行함은時代錯誤의形式政治일뿐아니라此로由하야生하는一般의苦痛과損失은實로莫大한것인즉新年부터는爲先下級地方廳과警察官署로부터此弊害를革新함이조흘듯하다

文化運動의批判

體育의根本精神

選手와一般에對한一言

朝鮮體育會長 高元勳

新年 所感의一部를 여러분에게 紹介하는機會를得한것은光榮으로싱각함이다 新年에第一標語는 여러분의身體健康을祝賀하는것이오 隨하야新年으로부터 體育에留意하시기를獻議하나이다 即老人은老人의體力에適當하도록 靑年은靑年의體力 少年은少年의體力의發育에適當하도록 一定한時間 運動하기를始作하시오 우리의顔色을 서로보시오 蒼白한냐 洽月의氣魄이안이면淺黃한菜花의形影을對한듯하외다 注意하시오天下의知識 名譽 무엇─무엇─이 다─自我의健全한身體로부터 創造되며 領有함을得하는것을

우리

社會에 各種運動이輸入된것은 數十年의歷史를有하엿스나此를統一的으로 指導獎勵하는社會的機關이存在치안이한外닭에 運動은一種의遊戲로認하야 運動의眞正한精神骨子되는 身體發育에關한敎育的領分은 幾乎沒却하는境遇에至하얏소 隨하야運動家의身體는稍히健壯하나 反面으로其品行은種々墮落하는弊가有하얏슴니다運動의結果에 身體가健康한故로 其身體의健康을自慢하야 不羈諸般放逸을濫하는外닭에 不幾年에其身體의虛弱함과其志氣의萎頹함이 反히運動안이한品行端正者에不及하는憾이有한故로社會는運動選手를評할時에彼는運動에熱狂하는者인즉 其餘人格品行信用等은議論할價値가無하다는態度를取하야 恰然히運動과品行은兩立하지못하는者와如히看做하엿슴니다 此等酷評은 勿論社會의誤解에胚胎한바가多하나然이나 選手의不品行에原因한當然의歸結이란點은否認할餘地가無합니다

世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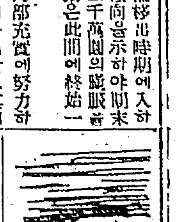
의名譽競技權을所有한 世界的選手를보시오 人格品行信用名譽等은 곳選手의生命이오 此等이不足하면如何히神奇한技術의主人일지라도빌은바世界的模範選手가되지못하는것이오 우리選手여러분도 新年으로부터 特히注意하야 運動의結果에得한效能으로써 運動의目的을損傷치안이할뿐안이라 更히進하야 社會로부터果然運動의眞髓가如此한것을知悉케하도록 運動界의選手라하면 其人格品行等의優良할것은特別히證議할必要가無하다는信念이生히도록努力하시기를希望하는바이오 朝鮮體育會는 此等의不完全한點을合理的으로 指導獎勵할目的으로하는社會的機關이올시다 新年으로부터一層奮勵하야 自家의使命을盡하려함니다

商況

京取後場休會

[illegible] 新市三十七圓初付에大阪은五[illegible] 意見에로新市[illegible] 勿論[illegible] 十五錢에始하야六十五錢이有함[illegible]

謹賀新年



鎭南浦 私立得信學校

鎭南浦碑石里 米穀貿易及委託販賣 莊元璐 電話一五九番 電略(장)又(シヨ)

鎭南浦龍井里 泰和醫院 金浩淵

鎭南浦府億兩機里 印刷業及寫眞館洋服店 主 白亨濟

鎭南浦府 各病診察入院隨意 大同醫院 院長 李根軾

平南鎭南浦池洞驛前 綢緞布木及雜貨商 吳應燦

龍岡郡海雲面溫井里 德泉旅館 主 李瓊西

龍岡郡海雲面溫井里 西泉旅館 主 李承洽

龍岡郡海雲面事務所 職員一同

龍岡郡溫井里 活泉旅館 主 姜泰周

鎭南浦府龍井里 委託販賣兼貿易商 魯起元 長電話二六二番

鎭南浦府碑石里 穀物貿易及委託販賣 常信商店 主 李康勛 長電話三六九番

鎭南浦龍井里 貿易及委託販賣業 信元商店 長電話四〇〇番 電略(신)又는(シンゲン) 宋元福 黃浙淵

鎭南浦新橋 牛山醫院 院長 金銖衡 長電話四〇五番

鎭南浦府碑石里 關西材木商會 金輝 李濟國 張熙俊 洪魚吉

鎭南浦府碑石里 穀物貿易兼委託業 ㊉運送店 郭聖健 電話三一四番

鎭南浦府碑石里 海陸物產委託賣買及貿易商 朴昌善

鎭南浦驛前 運送店 主 張應璧

鎭南浦府龍井里 客主組合

鎭南浦府龍井里 信一組合

鎭南浦府後浦里 委託販賣兼貿易商 李孝健 電話二四八番

鎭南浦府後浦里 金志澈

鎭南浦府後浦里 貿易商 權正敏 長電話三五六番

鎭南浦府後浦里 貿易商 李洛燁 長電話二四四番

鎭南浦府後浦里 穀物貿易兼委託業 三盛商會 長電話二三番 電略(カン)又ン(한)

鎭南浦 閔俊基

鎭南浦府後浦里 穀物貿易委託賣買 昌業精米所 長電話二二六番 三三五番

鎭南浦漢頭里 貿易商兼委託販賣 公明商會 主 林子成

鎭南浦府碑石里 穀物貿易商委託販賣 金正洪 黃洵健

鎭南浦 李鍾燮 電話四三四番

鎭南浦 仲介組合

鎭南浦龍井里 穀物貿易商 申應觀

鎭南浦府驛前 米穀貿易委託賣買 協成運送部 電話一六七番

鎭南浦府 天道教區

鎭南浦府龍井里 自轉車及附屬品商 池商會支店 朴世炳

鎭南浦府碑石里 貿易兼委託業 金興商會 主 金利涉

鎭南浦府後浦里 黃鎭涉

鎭南浦府 金柄珣

鎭南浦府碑石里 三和釀酒商會 電略(산화)又는(サンワ) 二八九番 尹基元

鎭南浦府碑石里 朝鮮料理 迎春館

鎭南浦府龍井里 天一醫院 院主 朴允秉 醫師 朴熙秉

鎭南浦府龍井里 海陸物產貿易及委託賣買業 共成商會 主任 李昌熙

鎭南浦府龍井里 穀物委託貿易兼雜貨 共進商會 主 金麟植 張玉鎭 申永勳

鎭南浦府龍井里 綢緞布木洋紙 協盛商會 代表者 韓明龍

鎭南浦府龍井里 海陸物產穀物委託販賣 姜信玉

鎭南浦府三和町 穀物委託賣買 莊雲瑞

鎭南浦府三和町 光開時計商會 李柱宅

鎭南浦府三和町 廣一時計店 黃世俊

鎭南浦府後浦里 三和商會 高致鉉

鎭南浦府龍井里 三和醫院 院長 孫昌淑

鎭南浦府漢頭里 太昌製鹽所 主任 金燦植

鎭南浦府漢頭里 海陸物產貿易兼委託販賣 英盛商會

鎭南浦府後浦里 綢緞布木紙物 義昌商會 崔義鎭

鎭南浦府三和町 貿易商 廣元商會 長電話三五八番 電略(フ)又(コウゲン)

鎭南浦府碑石里 雲興商會 高冕[illegible]

鎭南浦府築洞十字路 三光旅館 主 吳致周

鎭南浦府 林醫院 新潟醫學士 林炳日 電話三〇番

鎭南浦府龍井里 貿易兼委託販賣商 鄭晃

鎭南浦府龍井里 開產組合一同 代表者 趙瑞南

鎭南浦府億兩機里 全錫淳

鎭南浦 三和青年會員一同

鎭南浦府龍井里 同和製藥房支店及同成醫院出診所 主 金用淑

鎭南浦 天主公教青年會

鎭南浦府碑石里 盧錫洪

ClibPDF - www.fastio.com

開幕初에 議長辭職

유신회의 발언요구 본산총회첫날
수라장이된삼십본산총회의첫날

시내수송동(壽松洞)에잇는 조선불교삼십본산 련합 사무소에서는 년례에의지하야 주지총회를열고자 각본산 주지가삼일에 진부모혀잇는데 삼일오전 열두시경 총독부에서 시천(柴田)학무국장이 림석하야 임장례사로 아못조록 조선불교를위하야 진력하기를바란다는 말을맛치고 뒤이어 의장으로 해인사주지리회광(海印寺住持李晦光)씨를 추천하고 산회하얏는데 사일오전 개회벽두에 리회광씨가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리유로 의장의 취임을 사퇴하고 한편으로 금번에 불교청년으로 조직된 유신회(維新會)에서 발언권을 요구하야 회의를 조선불교승려대회로 하자는 발론이 잇서 청년파 주지와 주지사이에 충돌이 잇고 또 주지와 주지사이에 충돌이 이러나 서로 세시간 동안을 격렬한 론쟁이 잇슨후 몃々본산은 탈퇴를 주장하야 회장은 비풍한 긔분이 넘치게되엿다 이째 발언권을 요구하든 유신회원중에서 회의장의 런결을 할려하야 아모조록 원만한 타협을 하야 일을 바라는 바이라고 말하야 의론은 분々하고 결국 사일중에는 아모해결을 엇지못하얏다

十年間에 營爲가 何事오
탈퇴한모주지 말

신사업을련결 금번 삼십본산련합으로부터 탈퇴할것을 주장한 모주지는 말하되 련합이란것은 조선사찰령에 특별히 그러한규뎡이 잇는것이아니라 사업을하야 나가기 위하야 만든것인바 십년동안 아모런 성공을 엇지못하얏슬뿐아니라 차々로 시세가 변하야가는터인즉 번저 쎄트린후에 다시 다른방범으로 련합하야 새사업을할터이올시다 만말하고

脫退는 早計
새로연합은 망상 탈퇴반대편의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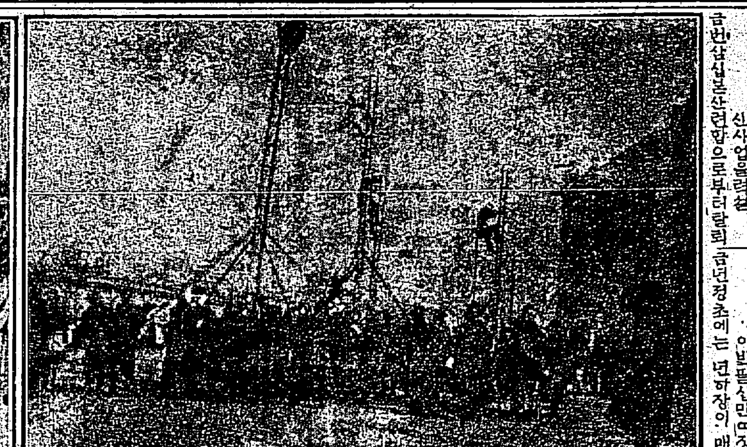
삼십본산련합을 주장하야 탈퇴를 반대하는 모주지는 말하되 그탈퇴하는편의 말은 한번 쎄트린후에 다시 다른방법으로 련합을 하겟다 말하지마는 원래 일이라는것이 그와가치 말대로되지 안는것이오 다 그리지안아도 의론이 빈출하야 여러가지 곤난한 사정이 만코 의무분담에 대하야 반대가 잇서서 다시다난한 이경우에 련합체도를 쎄트려노면 결국 수습할수업는 비참한현상을 이루고 종래에 해버려오든 사업에도 큰영향이 잇슬터이니 모든 분로와 불평을 참고 순전히 조선불교를 위하야 현상을 유지하고 개혁은 상리를 보와서 서서히 하도록 하엿스면 조켓다고 말하더라

京城市內에서 一日에 配達한 년하장의 총수
이번팔십만여장

금년정초에는 년하장이 매우 만하얏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금년정초에 경성안에잇는 각우편국에서 취급한 년하장의 수효를 조사한즉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에서 초하로날 배달한것이 칠십팔만일백이십구장이오 광화문(光化門)우편국에서 사십만오천사십장과 남대문(南大門)우편국에서 사장과 서대문(西大門)우편국에서 삼만이천구백장 룡산(龍山)우편국에서 칠만팔장인데 전긔 다섯군데에서 초하로하로에 배달한 총수효가 팔십팔만사천여장에 달하얏스며 금년에는 일본에서오는 년하장은 작년보다 감하고 조선에서 발송한 수효는 증가한것을 보면 일본에서 오는것은 필경 재계의 영향으로 감한듯하며 조선사람들이 차々 년하장을 만히 보내는 모양이라고 모우편국과장은 말하더라

阿片먹고 自殺코자
음독한녀자의말로

경의선사리원 서리이백륙십이번디(京義線沙里院西里二百六十二番地)에사는 박창실(朴昌實)의녀 박선비(朴仙妃)(二一)는 본래 자긔부모의 명령을듯지아니하고 경의선흥수원(京義線興水院)에사는 김덕채(金直彩)와 부부가되야 얼마동안 자미스러온 살님을하다가 그도또한 마음에 만족지못하엿든지 남편김덕채를 바리고 재령읍(載寧邑)에사는 고좌연과 바리듯시 내여바리고 엇던자와가치 살님을하다가 또 면칠이못되야 다시 사리원서리삼백번디(沙里院西里三百番地)류병선(劉秉□)의 사랑이 되야 지내다가 또 사리원면서긔(沙里院面書記)서항직(徐恒直)과 살님을하든바 무슨까닭인지 지나간 십이월삼십일々 새벽세시경에 준비하엿든 아편을 먹고 죽으랴고 하엿는데 대즉시 응급치료를 하엿슴으로 생명에는 관계가 업섯스며 그의부친 박창실은 말하되 자긔는 그자식으로 인하야 창피한일을 여러번 본고로 지금은 자긔자식으로 인정치안는다하며 죽으랴한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더라(사리원)



計劃中의 忠南高普

설립비용은십일만오천원 위치는홍성으로투표결뎡

충청남도에 고등보통학교 한곳도 업슴으로 작년에 도평의회에서는 학교를 세우기위하야 도령의 발긔로 고등보통학교기성회(高等普通學校期成會)라는것이 성긴후 충청남도각디에서는 서로 자긔디방에다가 학교를 세우도록하고자 운동이 맹렬한중 공주(公州) 홍성(洪城) 텬안(天安) 연기(燕岐)의네곳에서는 더욱 위치의경쟁이 맹렬함으로 도령에서는 각군대표자들을모히게하야 학교위치에 대한 투표를한결과 홍성이 뎨일고뎜으로 당선되얏다함은 임의루차보도한사실이어니와 이에대하야 총독부와 일반의후원을엇고자하야 홍성군에서는 대표자 윤대영(尹大榮) 리명세(李明世)량씨가 상경하야 방금각방면으로 운동중이라는데 전긔량씨의말을드르면 충남고등보통학교 설립문데와 위치에한문데는 작년중에 충청남도에서는 가장큰문데이엇는데 각군에서 위치경쟁이나게되매 도령에서는 일반

설립비용
십일만오천원을 충남각군에 배당하야 모집코저하나 홍성에서는 단독으로 담당하겟다하야 극력준비한결과 십일만오천원의 거의를 준비하야 홍성에잇는 호서은행지뎜(湖西銀行支店)에 맛기고 당국에 진정한사실이 잇섯스며 고등보통학교문데로 말하면 홍성이 가장먼저 긔본금을 준비하얏고 자금도 이는 홍성에 부자가만히 사러서 그러한것도 아니오 일반의 자각으로 그리된것이며 홍성은 충청남도의서북부로 중심이되고 장차

경남텰도
(京南鐵道)의 중심뎜이 되야 교통도 편하게될터이며 전후좌우에잇는 례산(禮山) 당진(唐津) 서천(舒川) 서산(瑞山) 청양(靑陽) 보령(保寧)등 여섯고을을 통합하면 현재에 보통학교가 이십칠개요 재학생이 사천여명이며 매년졸업생수효가 천명에 달한즉 거리와 디뎜으로도 뎍당할듯한데 다만 지금은 모든준비가되얏슨즉 당국의결재만 바랄뿐이라고 말하더라

怪猶太人搜索
영인구레의일파 헌병대의대활동

하라사에 귀화한 영국인구레가 작년십이월이일에 일본관헌에게 발각되야 상해로 쫏겨가고 그사건에 관계되엿든 일본인들도 모다 검거되얏다함은 사건발생당시 보도한바

間島에서 朝鮮에 오는려힝권은
사진을안붓치도조타

독립운동자를 단속하기 위하야 작년부터 간도(間島)에서 조선내디로 드러오는 일반조선사람은 령사관의신원증명(身元證明)을마트며 그중에서에는 사진을붓치는등 수속이 엄중하얏스나 금년일월부터는 사진은 아니붓치고 증명서만가저도 관계치 안케되얏다더라(간도뎐보)

『大漢門前에 大火災』

경성시내각소방대의총출동 어제아츰소방대의처음연습

작사일은 해마다 전례에따라서 경성소방대(京城消防隊)를 비롯하야 룡산(龍山) 마포(麻浦)등의 각소방대가 오전여덜시에 화견대(火見臺)에서는 경종(警鐘)소리를 군호로하야 태평통광장(太平通廣場)에 모히어 서리가 가득한 넓은마당에는

활발하고
민첩하게 채련 소방수가 각々자긔의 단데로 남우어서고 대한문(大漢門)압헤서 황금뎡(黃金町)으로 통하는 큰길에는 「폼푸」등는 좌우로 정렬하야 느러섯코 여달시반부터는 긔마순사가 사방으로 느러서서 종횡으로 일렬검사하고 현장에서는 때々로 「나팔」로 험동을 호령하야 식장에는 마치 전장에 간듯한감상을 이르킨다 식장으로

아침치위
도 도라보지아니하고 사방에서 모혀오는관중은 경계선밧그로 몃겹식둘너싸서 식장은 매우 번화하얏다 정각이되매 당일의검렬관인 빅상부장과 공등지사의탄 자동차를 선두로하야 그다음에는 시내각경찰서장들도 자동차를 연하야 사방으로 분렬하얏는 각소방대를 순검(巡檢)한후에 순서에따라서 연습이 진힝되얏다 처음사다리로 올나가 우로하는 경기로 시작하야 실제로 화재방어의 연습을 여러가지로 거행한후에는 편막을 둘너치고 당일 검렬관(檢閱官)인 빅상경찰부당(白上警察部長)을 비롯하야 공등지사(工藤知事) 길송부윤(吉松府尹)과 시내각경찰서당 기타다수한 릭빈들이 출석하얏스며 살을 어이는

한편에서는 연긔가 나서 불길이 나오는 장치를하야놋코 각소방대들이 그현상에서 한편으로는 「폼푸」를 드리대며 불을 쓰며 또 한편에서는 집안에서 불길에 싸혀 부르짓는 사람들을 구하여 내는 연습인데 모다 소방대들이 화재를 당한사람의 모양으로 채리고 이칭에서 뛰여나리며 줄을타고 도망하는 형상은 일종의 연극을 보는 감상을 이르키엿다 연습이 맛친후에 공등지사는 십오년동안 근속한 소방수에게 표창하는 상장을주고 빅상부장의 훈시와 경성부윤의주효목록(酒肴目錄)의 상금이 잇슨후에 동열시반에 철더히식을 마치엇다더라

安國洞强盜嫌疑者로
데포된리모

시나간일々 오젼두시경에 시내안국동 일빅칠십오번디(市內安國洞一七五)에사는 김경순(金敬淳)집에 두명의강도가 칩입하야 식칼로주인의밥을씨르고 현금육원을 강탈도주하엿다함은 임의보도한바이어니와 그동안 종로경찰서에서는 침식을 이저가며 대활동을한결과 그유력한 혐의자로 본적을 경긔도광주군(京畿道廣州郡)에두고 시내황금뎡이뎡목 이빅오십이번디(市內黃金町二丁目二五二)에 류숙하는 리모(李某)라는자를 데포 취조중이라더라

十五年勤續者
포상바든다섯명

소방대의 출초식(出初式)은 별항과가치 청더히 맛치엇는데 상비소방수(常備消防手)중에 십오년동안을 근실히 활동을 계속한 소방수 다섯사람은 식상에서 표창한 바이라는데 그성명은 아래와갓더라

▲橋本十太郎 ▲金允洙 ▲金榮煥 ▲盧石奉 ▲伊藤友松

理事를거러告訴
려수금융조합에서

려수금융조합(麗水金融組合)은 수년래로 조합의성적이 량호하더니 근일에당하야 조합의엇던 한비밀이 폭로되야 려수알반에 대문데가되야 장차사건의 진행이 엇더케될는지는 모르거니와 조

社告

懸賞漢詩募集 第一回

一、 題 梅
一、 體 律
一、 韻 不限
一、 投稿期限 一月十五日까지 『東亞日報社編輯詩壇』에 送附함을要함
一、 考評 京城의各大家에 依賴하야 考評
一、 發表 一月二十七日
一、 賞 甲一人 乙二人 丙三人을 選定하야 詩와評을 並히 東亞日報에 發表함 其外佳作도 三十篇內外를 發表함
入賞者에 贈呈할 賞品의 種類는 追後發表함

新年에 初事故
면차에치인사람

지나간이일 오후여덜시 삼십분경에 룡산을떠나 광화문으로 향하는 면차가 황금뎡이뎡목 륙십칠번디(市內黃金町二丁目六七)압흘 지날때에 시내명치뎡 이뎡목 오십오번디(市內明治町二丁目五五)에사는 허수봉(許壽鳳)은 정신업시면차궤도를 가루건너가라다가 그만면차에 엽구리가 치엿는데 밧금자택에서 치료중이며 그상처는 그리중하지는 아니하다더라

불이난것
과가치 삼며

◉휴지통 ▲새해가 되자 일긔가 부조하여집도 이상한 일이라하겟다 차々극한이 되니 그러키도 하겟지만은 아츰저녁으로는 치위가 비상하고 한낫에는 비교뎍 온도가 놉하서 감긔가 만히 류힝되는 모양이다 ▲감긔가는 병이야 그다지 두려울것도 업다하겟지만은 실상은 즉겁으로 조금 호흡긔에 관계되는 병이라 조금 간단히 두다가는 위태한 디경에 싸지는 일도 잇슬는지 미리 주의함이 조켓다 ▲정초나 조흔때만되면 술을 마피면 고닥치는대로 칼이나 몽동이로 서로치고 싸리고하야 죽고상하고 하는것은 일본사람의 자랑하는 「무사긔질」인지는 모르거니와 아측까지 진고개방면에 그러한 소문이 업슴은 다힝 ▲그러나 일본청강현에서는 초사흔날 새벽두시에 수빅명의 로농자가 어우러저서 산양총과 칼도 쐬르고 싸리고하야 중경상자가 수십명이나 낫다한다 정초에 하필 이싸위짓을 아니하면 신명이 아니풀니는지

天氣豫報

自四日午後六時 至五日午後六時	晴
溫度 三日最低 攝氏	零下 三·一
四日正午	零下 六·八
日出	上午七時四五分
日入	下午五時一九分

◉온도비교◉(華氏)
今年昨日(正午) 零下 六·八
昨年昨日(正午) 同 一二·三
昨年最低 零下 二二·三

◉─모─임─◉

▲조선불교회강연회 금오일하오칠시에 수송동 각황사(覺皇寺)에서 다음과가치강연
見道 眞理를 아랏스면 朴漢永
自由는 어데잇는고 權相老
事業의 眼 李康英
榮光잇는 人生의 價値 李晦光
內一 惠溪

▲불교회대강연회 금오일하오두시에 동통불교중앙포교소에서 다음과가치강연

男子가女子로=女子가男子로 (四)

制度를超越한新女子가되야
스사로자유를취하고실힝하겟소
吳祥根氏談

(계집으로태엇스면)

◇내가 녀자가되엿스면 나는 첫재로 제도(制度)를 초월(超越)한 새로운 녀자가 되겟습니다 지금조선녀자들은 너머도 제도에 구속되는 힘업고 쎄업는 사람들이 되엿습니다 현재조선의 가뎡을 보면 혹은 락원의가뎡(樂園의家庭)이 잇는지는 모르나 그대개는 모다 디옥의가뎡(地獄의家庭)들 뿐이외다 ◇녀자가 시집만가면 시부모에게 구속되야 봄에든 버래가치 널치며 쓰고매운 눈물을 쏘는 가뎡살님을 합니다 나는 녀자가 되엿스면 도시현재와 가튼 가뎡에 시집을 아니가겟습니다 약혼이니 결혼식이니하는 제도를 버서바리고 모든우수운 제도를 버서바리고 사회에 나아가 마음것 재조로 일을하다가 혹나의 리상(理想)에 맛는 남편을 맛나면 그와가치 지내겟습니다 ◇그다음 둘재로 내가 녀자가 되엿스면 나는 자유(自由)를 가진녀자가 되겟습니다 지금조선의 새로운 녀자들은 해방(解放)하여다 평등(平等)하여다 고하며 야단들이는 것을 봄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다 자긔들이 해방을 아니하고 평등을 아니하는 것이외다 나는 녀자가 되엿스면 종교(宗敎)에 대하야 또는 사회사업(社會事業)에 대하야 자긔의 취미와 리상대로 그곳에 자미를 붓치고 세상을 보내겟습니다 ◇셋재로 내가 녀자가 되엿스면 나는 개성의 자유(個性의自由)라는것이 잇지안습니까 이자유를 힝사(行使)치 못하는것은 모다자긔가 못나서 그리한것이외다 ◇그리하고 셋재로 내가 녀자가 되엿스면 나는 실힝(實行)하는 녀자가 되겟습니다 현재조선녀자들은 말만해방이니 무엇이니 하고 도시실힝이 업습니다 내가 녀자가 되엿스면 수천만 사람이 무엇이라고 비평을 하던지 자긔의 생각하는 리혼이나 무엇이나 맘대로 하겟습니다 세상에 사람이라는 것은 모다 자긔의 마음대로 하야 살 것이외다

男子로 實行의 人物이 되고
녀자를 잘도아주는 친구가되겟다
東亞婦人商會 李玩駒女史談

(사나희로태엇스면)

◇나는 남자가 되엿스면 참말 매우 깁붐이 만켓다고 생각합니다 첫재내가 남자가 되엿스면 나는 철저(徹底)한 정신을 가진 실힝가가 되겟습니다 지금 조선남자들은 모든일을 과단(果斷)잇게 실힝치못하고 말만하니 답답합니다 ◇이것은 장부라는 남자로 면목이 아니오닛가 그러나 남자가 되엿스면 과연 실힝이 업게 자긔의 성명을 밧치고 내 뎡성 업수 잇는 일을 보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말 안타까운 일이외다 ◇둘재로 내가 남자가 되엿스면 녀자를 잘도아주는 친구가 되겟습니다 조선녀자들은 무엇을 하겟다고 하여도 힘이 업스니 나는 남자가 되면 녀자들을 도아주겟습니다 ◇셋재로 내가 남자가 되엿스면 조선물품(朝鮮物品)을 쓰는 사람이 되겟습니다 지금 조선남자들은 대개 일본이나 서양의 물건을 쓰며 조선물품을 쓰는 사람이 적습니다 나는 남자가 되면 무명옷을 입고 조선의 물품을 쓰겟습니다

謹賀新年

木浦竹洞 車大均

木浦青年會一同

木浦府南橋洞 東亞醫院 院長 金命峻

木浦府竹洞 車南鎭

木浦府竹洞一六 書籍文具商 金鴻來

木浦府竹洞五一 具鎬善

木浦府寶町三丁目 精米業 金文玉

木浦府北橋洞四十六番地 林炳采

木浦府榮町一丁目四番地 海陸物産 布木貿易 金弘鉉 金近植

株式會社 湖南銀行 木浦支店

木浦北橋洞 慶(萬壽)

木浦府福山町三 南鮮印刷株式會社 木浦出張所 (本店全南光州郡光州面)

木浦府竹洞 穀物精米 諸綿貿易 委托賣買 大平商會

木浦府務安通三番地 代書業 金武賢

木浦法院支廳構內 代書業 羅福均

木浦府幸町二丁目四番地 米穀商 南天商店

端川郡波道面新昌里 敎授 金學俊 / 端川郡波道面新昌里 金相烈 / 端川郡波道面銀湖里 張鈴學 / 端川郡波道面基坪里 金宇鉉 / 端川郡波道面德川里 / 端川郡汝海津 李膺範 / 貿易商 金明協 李日化 姜漢 / 綿布雜貨商 端川汝海津港 李基權 / 端川汝海津港 姜雲起 / 端川郡汝海津港 李龍根 / 貿易商 姜瑞 / 端川汝海津港 姜吉俊 / 端川郡波道面新昌里 南京俊 / 端川郡波道面新昌里 金奎現

端川郡邑內 株式會社 興業社端川支店

朝鮮咸南端川邑內 海陸産賣買商 金守根

端川郡邑南門外 布木商 許道南

端川波道面倉山里 李雲植 / 端川郡波道面上直節里 農業 沈泰成 / 端川郡波道面下直節里 商業 李柱郁 / 端川郡波道面上直節里 農業 李遠洙

天道敎 端川郡敎區

開城南大門內 聖書及敎科書 和洋雜貨 普文館 主 韓哲容 申公良

開城北本町 松京人蔘商會 振替京城八八五七番

喪中欠禮 京城舟橋町三四番地 劉泰鼎 劉泰魯 劉泰應 劉泰瑚 劉泰榮

開城大和町 輸移出入貿易業 合名會社 開城人蔘部 電話長四九六、三 振替京城二一七二一番

開城南本町一五一 開城人蔘商會 電話長六八番 振替京城四三四六番

開城電氣株式會社 電話五六番

開城北本町 合資會社 高麗蔘業社 電話長四八番 振替京城三三九九番

開城東本町三二一 高麗人蔘商 同福商會 主 李喜鎭 振替京城九六二三番

開城北本町 醫生 李敦永

開城池町 金永澤

開城北本町 開城病院 醫師 金興祚

開城北本町 高麗人蔘永豐社 主 朴在挺

開城北本町 中央人蔘商會 主任 田在玉

ClibPDF - www.fastio.com

무쇠탈 (五)

閔牛步

신사라한옥, 남작안시졔, 음모당괴수김규복

원희양의 주의로인하야 두사람은서로자리를밧구게되엿다 이모양으로 서로 숨을흐는중에 안퇴숑의노긔도 얼마큼진뎡되야 긔운이회복되리라고 원희양이 좃깃버하는대신에 커편에서는 이리하여야안되겟다고 이번에는 가장안퇴숑의비위를 거사릴듯한말로「아이놈아 비가화만친문에서 무슨말을 보겟다고 그리취회를바랏니 이애이놈아 속는놈도 소원을들어준다 나는 내가최이나는대로 이약이를 하여주마 이말을듯고 안퇴숑의 얼굴이 다시변하기사작하매 자긔말의효험이잇는것을깃버하는 커편은 다시말을이어「첫재긔사에는 루이십사세가 판벙쇠을가지안다고 쓰엿더라 이것이나이것이나 아니되겟도 안는것을보면 그것은아니된모양이로구나 그러면둘재긔사인가 옳치 둘재긔사에는 경시총감으로봉화가 재로운군대신을 겸임하엿다고 쓰엿잇더라 첫재나 둘재긔사에 엇더한말이 쓰엿던지 그것이무슨상관이랴 정말중대한 군호는셋재긔사에 잇는것이다 그셋재긔사에 만일「라마라」는 두자가잇스면 우리동지들은 대장군으로부터 거사하라는 명령이나린것으로알고 오늘밤안으로 봉란서국경을 돌어서야 될터인데 이러한미친놈과 시비를하고 잇슬배가안이라고 안퇴숑의 가슴은 는러질것가치 설어올는다 야々셋재긔사에는 무엇이라고 씨엿는가 신문은셋것을지라도 그것만듣으면 버목덕은 달하는것이라고 칼자루를 고술더쥐며 숨도쉬지안코 기다리는 그얼골빗슨 翕하엿던지 「흥둘재긔사에도 일이업나보구나 그러면 셋재긔사에는 무엇이잇던가 볼가 파리에외국사신이 왓다 과하엿더라 그사신은라마에서 왓다고 느라마에서라는한말에는 안퇴숑의 가슴「뚝금하엿다 그러면 명령이나렷는가 다난바라고바라던 목덕이성취될시긔는 돌어왓는가 우리동지들은 범서이 군호를보고 각기길을떠나겟고나 이몸이 홀노뒤지면 여러사람에게 무엇이라고말을할고 이러한싱각이 일시에번개가치 소사올으나 안퇴숑은건후 관계를다이커바리고 견듸지못할 혐뱀을밧는 것커럼 「아이놈아」하는소리를치나 이것이실로운명의다하는때엿다이와가치 운잇든 더러만한빈틈을 나타내엿다아가부터 무슨계커가 잇기만 엿보고잇던커무사의 날낸보검은안퇴숑의염구리를뭇쇠뚤엇다요해커에 이러한중상을 당하엿스니 엇지무사할수가 잇스랴 입으로코으로 붉은선지를 토하며 둥뒤로넘어지니 동뒤에잇던방원희는 비조가치 달녀들어 그를껴안엇다 한번녹이옵으면 녀자는몸이여 남자보다 강한수가잇는것이라 원희양은 소사올으는눈물을 가슴에거축하야 한방울도 흘니지아니하고 분함에 쇠여지는 두눈을돌어서 봉공대던의커원수를 눈속에석여 두라는듯이 커편무사를 한번쏘려본뒤에는 다시돌어도아니보고 안퇴숑의몸에서 흐르는피를자긔살에서 나오는피와가치 손에무치가며 구원을하나 아마도임의소용은업슬것이다 아々 비장한 안퇴숑 경던의디의 큰뜻을 품은몸으로써 이십팔세를 일평생삼어 도업는 술집에 그목숨을엇든리면 그원한은언제나 쏫이나랴

호긔가 등々한 커편무사는 가석한 안퇴숑과 가련한 방원희에게는 눈도떠보지아니하고 수건을쇠버여 칼에뭇은피를닥그면서 「어－유쾌한놈이도구」 이불란보검은 엇더한덕수를맛나던지 커본일이 업서민케 오늘할일은다하엿다 오늘밤우칼십 이불은덥고잘쉬여라」하며 가장유쾌한듯이 옷는모양은 참가중하엿다 이빼에그의친구인 젊은신사는 타자우에서나려와 그무사의손을잡으며「자아 이리예서 오래잇스면 무엇하냐 어서가세」하고 재촉하야달이고 나가니 문밧게는 눈이임의한치나싸여서 알면이 은셰계로변하엿다 두사람은서로말업시 밤일호텔을 향하야 얼마장가량이나 가다가 그무사는 자긔공로를자랑하랴는것커럼「아々라한옥군 이번덕수는 참무서운덕수인걸 이약배수단으로도 한참은 몸사부닥것는데」하고말을부치니라한옥이라는사람은 별로 대단히덕이지도안는것커럼「흥 여보게 안남작 자네는중대한 명탐사건을 로봉화에게ㄴ하다가뒤를돌너보아 사람이업는것을 살힌뒤에다시말을이어「경시총감로봉화에게 부탁밧고 이곳으로좃차늘오지안엇나 술집에단이며 결투나하면 자네직책이잘되나」안남작이라는사람은 또사방을둘너본뒤에「응념려말게 나는이번에 음모당의괴수김규복을 명탐검잡으러왓고 자네는 이번음모를몰이라 각국으로 돌어다니는 그유명한귀부인을 암살하라 오지안엇나」「귀부인은 고사하고 황족이라비 귄황후라비 오날밤내로 갑쏙가치 커치울뒤이니보게」안「권황후폐하라도루이왕과갈너친당에는귀부인이지그야엇지되엿던지자네일과내일은 다각々이낫가내야술집에가결투를하던지어듸가무엇을하던지자네가참견할것업네」「그는그러타할지라도 그싸위 헤단치안이한위인과는하고말을씨내매 남작은 큰키를더좁놉이면서식 사람보게 자네는맛가그자를무명지조로만아는가늬라「웅그자의검술로붙지라도 아조무명지졸은안이겟지만은 아무려던지 괴수김규복이 이외에 손을대는것은 자네의직책이안이란말일셰」「안자네도잠깐눈어그러케어둡단말인가 지금그자가죽진규복일셰 김규복이야「응무엇이야」「안」「골날만도하겟네파리에서는 김규복이라고하고여긔서는 안퇴숑으로 휘세하는것이 지금죽이던그자일세 인케음모고무엇이고다스러졋네」

山亭敎會査經會

義州光城山亭耶蘇敎會에서는十二月十九日夕부터同二十三日夕까지安承源牧師를請하야査經會를開하얏는데張晟植助師와共히每日三時間聖經研究와夜에는講演會를開하얏다더라(新義州)

開城의聖誕祝賀

開城六部敎會와各敎會學校及幼年主日學校에서는十二月二十二日부터二十七日까지盛大히聖誕祝賀式을擧行하얏는데堂內의裝飾한設備와天眞爛漫한幼年學生의數拾種讚頌과趣味잇는技藝는實로滿場人士의게感想을이르키엇다特히松都普通學校의祝賀는嶄新奇拔한數拾餘種으로趣味가津々하얏스며學生一同의禮物은數拾圓의金額과白米一石餘에達하야該金額及白米는開城市民中貧民의게救濟米로惠給하얏다더라(開城)

新上敎會聖誕祝賀

咸鏡線新上耶蘇敎會에서十二月二十四日救主聖誕祝賀禮式을擧行한바午前十時부터는十五歲以上男女百餘名이會集하야牧師吳文根氏의司會下에式을行하고餘興으로는捕鐵이有하얏스며一方으로는本敎會附屬私立耶蘇永生學校男女學生六七十名이幹事李晩洙氏指揮下에作列하야市內로巡回하면서讚美를呼唱하얏스며午後一時半부터는本敎會幼年主日學校長李晩洙氏의司會下에十五歲以下男女二百餘名이會集하야式을行하얏고夜에는學生의提燈行列과當地有志沈相益氏의考案인背恩忘德者의末路란演劇과其他二三種의喜劇을興行하얏다더라(新上)

山亭主日校學藝會

義州光城山亭幼年主日學校에서는十二月二十三日下午八時에第三回學藝會를開하얏는데校長鄭應華氏의司會下에讚頌八章과張晟植氏의禱祈及校長의式辭로써開會後連하야一般學生의問答演說唱歌等이有하얏고李能道君의獨唱及는基督精兵의活劇과「엄서집」이란歌劇은聽衆에게莫大한感想을주엇다이에進級證及賞品授與式을行한바二百餘名의會集한盛況裡에同十時散會하얏다더라(新義州)

高城郡廳舍新築

江原道高城郡은從來高城杆城兩郡을合하야郡廳所在를杆城으로하얏다가大正七年頃에高城으로移轉後公立普通學校一室을借하야廳舍로代用하던바大正十年五月부터廳舍新築工事中旣히完成을告하고十二月十七日에落成式을擧行하얏는데二層으로構造가壯麗하야高城新建物의首位를占하더라(高城)

故金憲洙君追悼會

故金憲洙君은海州靑年界有望한靑年으로延禧專門學校商科在學中이던바不幸히지난十月二十四日不歸의客을作하얏는데海州郡牛親睦會主催로十二月二十七日午後二時南本町禮拜堂內에서追悼會를開하얏는바讚頌祈禱가有한後式辭、追悼文及略歷을朗讀하야嚴肅한裡에서式을畢하얏는대各團體를代表하야參席한者이百餘名에達하얏다더라(海州)

綾州禮拜堂祝賀式

全南綾州禮拜堂에서는十二月二十五日午前四時부터「크리스마쓰」祝賀式을擧行하얏는데嚴洙卿女史의引導下에數十名女學生은白雪寒風찬새벽에淸雅한목소리로讚頌歌를合唱하야一般人士의게無限한感覺을주엇스며同日午後三時부터는餘興으로天眞爛漫한少年女學生의遊戯唱歌와金元培君의感想談、鄭孝龍氏의「信仰」이란題의熱辯이有하야數百名聽衆의게만흔刺戟을주엇스며當地靑年會側에서는假裝演藝를行하얏는데同情金이亦有하얏다더라(綾州)

金光準氏의篤志

高陽郡漢之面往十里旺新靑年會主催의夜學講習院은現在學生이百[illegible]十餘名이오以來院長鄭貴協氏의熱誠으로서今々지繼續되여成績이極히良好하나本會인즉基本金이無함으로困難이多하던中今番金光準氏가冬節에燃爐使用의石炭全部를擔當키로하얏슴으로一般人士는感賀不已한다더라(往十里)

救主聖誕紀念式

信川邑耶蘇敎信徒는今年그리스도의聖誕이日曜日임으로一日을延期하야二十六日上午부터禮式을擧行하얏는데主日學校生徒를奬勵키爲하야午前에는施賞式을行하고午後七時에다시모히여開會하고小學生들로자어唱歌와讚美로그리스도誕降을讚揚하고連續하야男女學生의餘興이有하얏는데觀光人이千餘에達하야盛況裏에同十一時閉會하얏다더라(信川)

各地靑年團體

寶城靑年討論會

去日曜日全南寶城靑年會에서는第十四回月例大討論會를開催하얏는데「戰鬪이냐平和이냐」란演題로可否便演士의熱辯과一般會員의結論으로舌戰이有하얏는데正會員及警官外三十餘名의女學生과婦人이參席하얏스며當日副會長林炳燦氏는參十圓價値의煖爐一坐를寄附하얏다더라(寶城)

엡웟靑年講演會

平壤府碑九里엡웟靑年會女子部主催로十二月廿八日下午七時同禮拜堂內에서傳道講演會를開催하얏는데演士崔順從孃은社會의改造를痛切히說明하고副會長金敬愛氏의趣旨說明과韓斌軸氏의聖誕日讚美隊組織報告가잇슨後閉會하얏다더라(平壤)

元山府場村洞二六 各種鍮器製造販賣商 洪運杓

元山府場村洞四二 獸肉商 白達行

元山府場村洞一二 貿易商 鄭岐鳳 電話六〇二番 電略テイ(정)

元山府場村洞一一八 米穀商 李大應

元山府中里三洞 海産業 崔致聖

元山府南村洞四四 海東醸酒所 主任 徐明奎

元山府 金源輻

元山府中里二洞四七 海陸物産委託貿買 永昌商會 電話二六三番

元山府上里一洞二四 支那料理 春發居

元山藝妓 成白玉

元山藝妓 朴明玉

元山藝妓 李錦花

元山府上里一洞一二三番地 海陸物産委託貿買 金秉洪 電話四〇番 電略キ又キ

元山府中里三洞三五 海陸物産委託貿買 徐相翰 電話五〇三番

元山府上里一洞 東西書籍文房具 金剛書店 主任 田殷富

元山府南村洞七四 東洋醸造所

元山府上洞 和洋雜貨商 方宗煥

德源郡赤田面松中里 洪淳璿

元山府 朴昌祚

元山府橋下洞 紬緞布木商 李道一

元山府北村洞二八 貿易商 開商會 主任 林芝永 電話四一六番 電略ホ又エイ

元山改良漁船製造所

元山船人共濟組合 組合長 尹相弼 副組合長 徐錫年

元山府南村洞一四一 貿易商 金昌洙 電話三一九番

元山運送業組合
北鮮倉庫運送部
株式會社吉村運輸元山驛出張所
田村運送店
大同運輸部
株式會社國際運送元山支店
興津運送店
マルミツ運送店
元山運輸組
元山魚貨組合輸送部
元東運輸組
元興運輸組
廣信運送部
永信運送店
齊藤運送店
協同組運送店
共成運輸組
鈴木運送店
足立組運送店

元山府南村洞一四 貿易委託業 葉盛商店 電話四五三番 貿易主 徐元吉 委託主 尹基洙 相談役 趙和璧

元山青年會

元山府南山洞 綿系布木 絹緞明紬 金鍾運商店 電話六四七番

元山府南村洞一二 京城洋靴店 主 愼元範

元山府南村洞一九 絹緞布木 金泰俊 同 四三 米穀貿易 金鍾裕

元山府上洞 海陸物産委託貿買 北鮮物産商會支店 電話三六一番 電略セン又(선)

元山府銘石洞 共榮商會 主任 金敬文

元山府南村洞七八 辯護士金正穆法律事務出張所

元山府泉町四丁目 貿易商 信山商會 電話七〇四番 電略サン又(산)

元山府舘橋洞二三 海陸物産委託貿易客主 李枝赫

元山府上洞一〇三 紙物染料 菜種油物 靑士雜貨 奇芸珏

元山府銘石洞 鷄林寫眞館 主 崔鳳熙

元山府本町五丁目 米國新式 咸信洋服店 主 盧文獻

元山府上里一洞六四 雜貨及ゴム靴商 泰興商店

泰興旅舘

元山府銘石洞一三七新作路側 紬緞布木商 金學洙

元山府銘石洞 大成醸造場 電話四二〇番 電略(대)(タ)

元山府橋下洞一九 匿名組合 元山衛生社 主任 金永南

元山府上洞三四 許泓元山支店

大本山釋王寺 元山布敎所

元山府南山洞一四 藥種貿易商 仁濟局 南觀熙

元山府銘石洞四八 帽子專門 永昌帽子店 李熙龍

元山府石隅洞 シンガ裁縫機械會社 元山分店 主任 李亨植 社員一同

元山府上洞一二五 金喆權

元山府上里一洞三三 海陸物産委託貿易業 關東商會 電話五四四番 電略カントウ(관동)

元山府上里二洞 海陸物産委託販賣 朴士益 電話一一四番

元山府中里二洞 漁物商 高鎬燮

元山府石隅洞一五八 藥草唐材直輸入當賣 主官許醫生 李明善 仁壽堂藥房

元山銘石洞七一 麵子製造 元恒碩

元山府銘石洞 絹緞布木各種帽子及雜貨商 主 李熙伯 廣興商店

元山府銘石洞九一 米穀商 李利天

元山府銘石洞九六 絹緞布木及ゴム靴雜貨商 邊錫熙

元山府上里上洞六六 歐米雜貨直輸入商 一興商店 電話七二三番

元山府南村洞 半島醫院 電話五二四

元山府 株式會社 東昌社 海陸物産委託貿易 取締役社長 趙昌允

元山府新村洞 海陸物産內外國輸出生牛委託販賣 張翼軫 電話五三一番

元山府銘石洞 貿易並委託業 宋龍澤 電話六六二番 電略ソウ又ソウ

元山府南山洞 海陸物産委託貿買 相信商會 電話四二三番 電略상又ショ

元山府中里 海陸物産委託貿易 盛興商會 電話一四四番 電略セイ又セイ 李秉均 韓行範 徐廷煥 趙承鳳

元山府南村洞五八 元山藝妓券番

元山府南村洞二六 支那料理 錦雅園

元山藝妓 金初月

元山藝妓 黃金香

元山藝妓 裵山玉

元山藝妓 嚴菊仙 嚴菊香

元山藝妓 高月仙

元山府南村洞九 絹緞布木及雜貨商 高炳哲

元山府上市場 紬緞布木雜貨商 崔弘俊

元山府北村洞 海陸物産委託貿買 金羽相 電話四六九番 電略ウ又ウ

元山府上里一洞 海陸物産委託貿買 東鮮商會元山支店 電話四〇四番 電略ト又ハ(ト)

元山仲介組合 電話五二十番

元山府北村洞三五 海陸物産貿易商 金永根支店 電話五六七番 電略(영)又ハ(エイ)

元山府北村洞一九 委託貿買業 明成泰 電話五六〇番 電略명又(メイ)

元山府上里一洞八三 元山醸酒所 主 李道元

元山府南村洞 東西各種藥材 唐草藥 各種賣藥製造元 濟壽堂藥房本舖

元山府上里一洞 海陸物産委託貿買 咸明商會 電話四三二番 電略三又ハサメ

元山府石隅洞 仁成洋服店 主任 朴基鏞

元山府北村洞 株式會社 興業社 電話四一七番

元山府上洞 海陸物産委託貿易業 宋子日

元山府上里二洞一二 貿易委託業 鏡元商會 電話三一二番

元山府上里一洞 海陸物産委託貿買 協成商會 電話一一二番

元山府中里二洞一二 委託貿買業 李道淳 電話四一三番 電略(도)(순)

元山府上里二洞 海陸物産委託販賣 咸南商會 電話一二七番 電略함남又함

元山府南山洞 絹緞布木商 權在國 電話七一八番 電略재국又은재

元山府上里二洞二五 元山貿易株式會社 電話二三一番 電略ケ又ハ(보) 受託略號ゲンサンボエキ

元山府銘石洞一二六 同 醸造部 元山正宗 元山金剛 白酒 製造元 合成醸酒所 電話五四七番 電略ロ又ハ(구)

元山府旭町一丁目四 同 穀物取扱所 電話一三七番 振替京城七二四四番

元山貿易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秉洧

元山府上里二洞八 北鮮倉庫株式會社 電話五三六番

元山本町四丁目 同 運送部 電話二一〇番

釜山府草梁洞 同 釜山支店 電話三〇三番

元山府榮町 元山印刷所 主任 朴敏龍 電話六四八番 振替京城三八一八番

元山府上洞 合資會社 德興商店 電話四三九番

元山府南村洞四 綿布並委託 同仁商會 電話五四五番 李秉奎 尹璣衡

元山客主組合

元山府場村洞一五八 貿易委託業 主任 鄭岐潤 電話六〇三番
同 一五九 絹緞布木部 主務 金二源禧
京元線高山驛前 貿易委託部出張所 主務 鄭岐泰
八島運送店 主務 咸滿玉

元山市外松興里 酒類製造 三好酒製造 附 山子製養豚 業德興醸造所 電話六六五番 電略(トク)又(덕) 主 韓璣洙 主務 張好淳

汽車